

만남

2015 10월

통권 129호
(목주기도 성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자신의 본성을 모독하는 인간들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오만에 대한 경계(집회 10,6-13) ———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14~116 -----	7
가정 교회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	16
찬 양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	18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4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25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6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7
미사안내	—————	28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인신매매

현대의 노예제인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아시아 선교

아시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선교 정신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합시다.

자신의 본성을 모독하는 인간들

‘세상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배고픈 사람은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른 사람은 맛없는 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맑고 밝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밝게 보고 사람과 사물을 아름답게 대합니다. 어둡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고 사람과 사물을 비뚤어지게 대합니다.

평평하고 깨끗한 거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밝게 비추어줍니다.
때 묻고 굴곡진 거울은 사물을 더럽고 비뚤어지게 비추어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를 오게(到來)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권능이 마귀 두목 베엘제불의 힘으로, 하느님의 나라는 마귀의 왕국으로 보입니다.

그의 마음을 악마가 찌리 틀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악마의 책략이라고, 천국(天國)마저도 지옥(地獄)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가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천국(天國)도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다가옵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늘나라(天國)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심(洗心)하고 수심(修心)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닦는 일을 회개(悔改)라 하고, 회개(悔改)하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누립니다.(마태4,17)

나의 가슴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가슴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성모님께 전구하십시오.

❖ 오만에 대한 경계(집회 10,6-13)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1절 노래하겠습니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 예수님, 당신 자비에 의탁하나이다. 의탁하고자 하는 맘을 일으켜 주소서.
- 저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저희를 당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이웃의 잘못에 일일이 화내지 말고 거만한 행동은 조금도 하지 마라.

오만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혐오스럽고 불의는 둘 다에게 역겹다.

왕권은 민족에서 민족으로 넘겨지는데 불의와 폭력과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된다. 돈을 밝히는 자보다 더 무도한 자는 없으니 그런 자는 제 영혼조차 팔려고 내놓기 때문이다.

먼지와 재가 뽐낼 수 있는가? 인간의 오장육부는 살아생전에 벌써 썩어 간다. 오랜 병은 의사를 비웃고 오늘은 임금이어도 내일이면 죽으리라.

인간이 죽으면 길짐승과 들짐승과 벌레들 차지가 된다.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오만의 시작은 죄악이고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뿜어낸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재앙을 불러들이시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신다.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말씀의 나눔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아래의 나눔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인간적인 한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1696년 헨리 윈스턴리는 세계 최초로 에디스톤 등대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등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렬한 폭풍우가 밀어 닥칠 때, 자신이 그 등대 안에 들어가 있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마침내 1703년 11월, 강렬한 폭풍이 불어왔고,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 등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자신이 건축한 등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등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날 아침, 그 등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출처: 나침반 출판사 홈페이지, 큐티365일, “폭풍과 함께 사라진 등대”)

집회서 10장 12절은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니 인간의 마음이 그를 지으신 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0장 ‘주님은 나의 목자’ 노래하겠습니다.

교리114

신앙의 목표(1)**자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음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통해 드러나며, 하느님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 안에서 드러납니다.(교리서 1730) 그러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톨릭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이성과 의지에 바탕을 둔, 행하거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며, 이것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하는 능력으로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교리서 1731)

이러한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거나 제한된 곳에서는 윤리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즉 어린이나 정신박약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외적인 상황 또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위협이나 공포, 사회적 압력이나 무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유 그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두 가지 심각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선택의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스스로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가 여행상품의 책자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지갑이 두둑할수록 고객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더 큰 선택의 가능성은 물론 자유에 대한 하나의 플러스 요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나를 위해서 올바르게 그 자체로 선(善)한 것을 선택할 때, 나는 나의 자유를 얻습니다. 귀중한 휴가 여행을 포기하고 대신에 장애인 그룹과 함께 휴가를 보낸 사람은 표면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지만, 그가 어떤 선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거기에 헌신하였다면, 이로서 그는 자신의 자유를 누린 것이며 얻은 것입니다. 때문에 자유는 선을 선택함으로써 성장하고, 선택한 선을 위해 헌신할 때 더욱 발전될 수 있습니다.(교리서 1733)

오늘날 심각한 오해는 외적으로 법과 규범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자기 결단

이 아무런 구속도 없고, 전제조건도 없이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에 인간의 자유가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을 더 많이 행할수록, 덕을 더 많이 베풀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 각자는 자유가 단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더 많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자기 합리화와 무자비함, 그리고 이기주의를 위한 구실로 삼아 쉽게 남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를 위해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알코올 중독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술에 대한 병적인 욕망에 술에로 그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비로소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알코올 중독자가 앞으로 술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마시지 않을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것을 항구하게 실천할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악에로의 성향을 체험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로마 7, 19)

악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갈라 5, 1)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참된 해방의 길입니다. (교리서 1742) 따라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존재 전체, 즉 이성과 의지 그리고 모든 힘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결합시킬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

언행이 일치한 사람일수록 권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이 자유스럽다. 그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개의치 않으며, 모든 행위에 그침이 없다. 한적한 곳과 군중 속,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지식인이나 무식꾼 사이를 거침없이 드나들고, 고관들의 식사초대에 응하는가 하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저치 않은 예수님의 행위는 자유 자체였다.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에게 접근하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한 8,1 이하), 낮선 여인을 아는 척만 하여도 주위의 오해를 사게 될까 두려운 터에 비싼 향유로 발을 닦으려 접근하는 여인을 유유히 허락하시는(요한 12,1이하) 예수님의 행위는 아직 하느님 나라를 깨우치지 못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게만 방자하게 보이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로까지 비쳤겠지만, 실로 예수님의 마음은 속된 것으로부터 무한히 초월해 있는 자유 그 자체였다.

이 자유로 예수는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귀함에 머물지 않고, 현명하면서도 현명함을 감추시고, 높으면서도 비천해질 수 있었다.(필립 2,6-8).

시대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소위 하찮은 인간들(창녀, 세리, 죄인, 과부, 병자...등)을 차별 없이 베풀어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자의 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자기에게 선한 사람에게도 선하고 자기에게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분이셨다. (於我善者 我亦善之, 於我惡者 我亦善之).

예수의 이 자유로운 행위 앞에 속인들은 오로지 위압감을 느끼며 떠나야 했고, 또는 할말을 잃고 시기와 질투를 더해 갔다.

모든 도식과 형식을 깨뜨리고, 모든 인위적인 것을 초월하여 하느님 나라의 자유를 사신 예수님은 그 어느 율법학자보다 더 율법에 충실하였고, 그 어느 도덕주의자보다 더 도덕적이었으며, 그 어느 사제보다 더 하느님께 가까웠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고행하는 고행주의자보다 더 자유로웠다.

교리115

신앙의 목표(2)**양심**

‘사람은 항상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 고 우리는 당연하게 말합니다. 양심이 항상 옳기만 한가? 양심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단지 자신의 양심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충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양심’ 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윤리적인 심급이요 대법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느님의 목소리라고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혼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양심이라는 개념은 그리스어 $\sigma\upsilon\nu\epsilon\iota\delta\eta\sigma\iota\varsigma$ 로부터 유래하며, ‘함께 안다’ 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양심을 ‘하느님의 목소리’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오류에서부터 양심의 실체에 대해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분명 양심의 지배를 받고, 양심에 의존하고 있지만 양심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도 양심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나 실제적으로 한 사람에게서 양심이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가책으로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인간성의 심각한 손실(그리스도인의 지위 상실)로 간주합니다.

양심은 명백하게 무엇을 판단하는 내적인 기관으로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적인 태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 혹은 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를 기대합니다.(교리서 1778)

이 기관의 오류인 ‘양심이 없는 것’ 은 아주 중대한 결핍 현상이요 죄의 뿌리가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는 핑계로 명백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참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한 양심을 괴롭히거나 조작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당

연히 정신이상이나 윤리적 파탄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나는 나의 양심을 따르고 너는 너의 양심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양심 안에서 선이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악이 소멸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양심에 호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선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그리고 그가 이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그의 양심이 깨어 있도록 일깨우고, 그가 자신의 양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양심의 모든 호소를 거슬러 무감각하게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 법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의 소리를 사랑하며 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사람을 타이르고 필요하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피하라’고 마음의 귀에 들려준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 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 법을 따라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요 인간이 저 혼자서 하느님과 같이 있는 지성소이며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사목헌장 16항)”

이 소리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양심교육’ (교리서 1783)과 우리의 신앙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는 민감한 양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자체를 최고의 윤리적 찬사를 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우리는 희망적입니다. 즉,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잘 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하느님께서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무한하시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우

리는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묵상>

마음은 모든 종교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음은 기록함과 속됨, 깨끗하고 더러움, 좋고 나쁨 등.

모든 이원이 생겨나는 곳인가 하면 그 이원이 극복되는 곳이기도 하다.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요 핵심이며,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흘러들어 가는 곳이다.

성서에서 마음은 영적 힘이 솟아나는 장소, 인식하고 사고하는 장소로 나타난다.(1열왕 3,11)

마음에는 하느님 진리의 빛이 빛난다.(2고린 4,6)

마음은 신앙의 장소로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의로움에 이른다.(로마 10,9 이하)

마음은 기억과 의지의 장소이며 결정의 중심이다.(지혜 3,3)

온갖 규정들도 마음 안에서 파악된다.(2고린 9,7)

열심한 사람은 마음을 억제할 준비가 되어있으며(로마 2,29),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으로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할(마태 22,37) 준비가 되어있다.

그런가 하면 완고하여 하느님의 의지에 종속되기를 거절하고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사도 7,51; 마르 10,5) 무정해진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당신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기에, 인간은 이미 심어져 있는 그 양심으로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로마 2,15)

잘못으로 잃어버린 마음의 기쁨을 다시 찾고자 한다면 돌 같이 차가운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서게 해야 한다.(에제 11,19)

교리116

신앙의 목표(3)**덕(德) - 사주덕(四樞德)**

하느님 홀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미에서 선하신 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을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 인간관과 가톨릭 윤리학의 근본사상입니다. ‘선하다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느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것의 선함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인 고백입니다.(교리서 299)

인간에 있어서 선(善)하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느님의 선하심에 참여한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자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비록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각기 고유한 선함을 지니지만(교리서 339),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이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선함은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영구적이고 확고한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전통인 덕(德)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덕은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

덕을 단순히 습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실천을 통해 얻어지거나 은총을 통해 주어집니다.

교회는 이 덕(德)에 관하여 그 근원에 따라 구별하여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룩할 수 있는 자연덕과 하느님의 선물에 의해 주어지는 초 자연덕으로 나눕니다. 자연덕은 인간이 일반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선행의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연덕에는 사주덕(四樞德)이 있고 초자연덕에는 향주덕(向主德 또는 대신덕對神德)이 있습니다.

사주덕(四樞德)은 자연덕에 속하는 것으로 지덕(智德, prudence), 의덕(義德, justice), 용덕(勇德, fortitude), 절덕(節德, temperance)이며, 향주덕

(向主德)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가되는 윤리덕(倫理德)과 구별되는 것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덕, 곧 신덕(信德), 망덕(望德), 애덕(愛德)을 가리키는 가르침입니다.

지덕(知德)은 현명을 나타내고, 사람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일을 쉽게 하도록 하는 힘이나 습성을 말합니다.

의덕(義德)은 정의를 이루는 덕으로 나타내고, 각 개인이 당연히 받아 누릴 권리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상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잘못들을 고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의덕이라 합니다.

용덕(勇德)은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곤란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선을 행하는 덕을 말하지만 정의에 봉사하지 않는 단순한 용기는 만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정의에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용기는 지성에 의해 정재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악의 존재로 인하여 많은 불의와 부패가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이것들과 싸워 정의를 세우고 선을 행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용덕입니다.

절덕(節德)은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육체적 욕망에 의한 감각적 쾌락에 의해 욕망의 노예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것을 이성으로 규제할 수 있는 덕행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절덕이라 하며 절덕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마저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신자로서 극기를 통해 덕행을 쌓는 것이 필요로 하는 이 덕행은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인간에게 특히 필요 불가결한 덕행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덕은 육체적, 정신적 지향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좌우되는 물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식욕 등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절재의 덕이라고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씀하신 “덕은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라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추덕부터 향주덕까지 덕목별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목표가 교회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목상)

바울로는 그리스도교의 덕목을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종합한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갈라 5,22).

여기에 감사(1데살 5,18), 참음(로마 15,4이하), 겸손(골로 3,12; 에페 4,2), 올바른 자기 신뢰와 자존의 덕이 은총에 속한다.

이 근본 덕목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신 진복팔단에 잘 나타난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마태 5,3-10),
이들이 덕이 있는 사람들이다.

첫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해서 루카는 이렇게 쓴다.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신명나는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들었다"(사도 2,46).

오로지 하느님 은총의 열매로만 수행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은 이런 순순하고 가난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실천된다.

비안네 신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여기 당신 앞에
우리의 작은 가족을 대령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을 가득 지니고서.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선물, 세상에도 선
물입니다.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온갖 놀라운 방법 중에서
첫째이며
가장 깊고,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저의 가족의 목소리입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만은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이고 싶습니다.

저의 가족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웃음과 눈물과 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고유한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사
랑의 선물에 대해.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듣기도 전에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있는 사랑, 바
로 그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눌 기
회를 주심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기에.
우리의 사랑의 부족을
우리의 이기적인 움츠림을 마음을 다
치게 했던 말과 행위와 침묵을 용서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간, 아니 매순
간 당신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없는 돌보심 없이 어찌 우
리가 서로를 사랑의 유대 안에 묶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여
우리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사려 깊은 마음으로 서로 아끼며
기꺼이 용서하며
기쁘게 섬기며

진정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일치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인류 가족에게
로 열게 하소서.

인류의 온 가족이 알게 하소서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가족이 사랑의 진원지
치유의 근원지
기쁨의 샘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서로서로
당신의 커다란 가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166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연광흠 신부 글 / 황영준 신부 곡

D A F#7 Bm

주 님 저 를 불 러 주 소 서 보 내 주 소 서
주 님 저 를 불 러 주 소 서 보 내 주 소 서

G D Em A7

어 두 운 세 상 에 당 신 말 씀 전 하 리 다 -
거 짓 된 세 상 에 진 실 과 믿 음 심 으 리 다 -

D A F#7 Bm

주 님 위 해 저 의 모 든 것 바 치 고 싶 어
이 웃 위 해 당 신 가 르 침 살 - 고 싶 어

G D Em A

서 로 가 서 로 에 게 사 랑 이 되 어 주 는 삶 의
서 로 가 서 로 에 게 소 중 한 선 물 이 듯 사 랑

Bm Em A D *Last time to Coda*

향 기 를 피 워 올 리 게 하 소 서 - -
의 향 기 피 워 올 리 게 하 소 서 - -

G A F#m Bm

우 리 가 만 나 는 모 든 사 랑 들 서 로

G A7 D D7

가 사 랑 을 느 끼 며 -

G A F#m Bm

서 로 를 통 해 서 당 신 사 랑 의 -

G Em Em⁷ A
 나 눔 을 살 게 하 소 서 -

D A F[#]7 Bm
 주 님 저 험 인 도 하 소 서 당 신 뜻 대 로

G D Em A⁷
 당 신 의 말 씀 과 당 신 사 랑 전 하 리 다 -

D A F[#]7 Bm
 주 님 저 험 인 도 하 소 서 당 신 뜻 대 로

G D Em A
 서 로 가 서 로 에 게 소 중 한 선 물 이 듯 사 랑

Bm Em A D D.S.
 의 향 기 피 워 올 리 게 하 소 서 -

D A F[#]7 Bm
 소 서 -

G D Em A⁷
 서 로 가 서 로 에 게 주 님 의 향 기 가 되 게

D (A) F[#]7 Bm Fine
 하 소 서 -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 점 님 최 영 숙	18일	루 카 (St. Luke)	안 태 호 이 동 빈
2일	안 젤 라	민 경 은	22일	살 로 메 (St. Salome)	정 명 옥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김 진 호 김 재 영	23일	이냐시오 (St. Ignatius)	윤 용 기
	프 란 츠 (St. Franz)	김 기 현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양 현 호 김 인 순 이 정 은			
	프 랑 크	김 기 년			
7일	로 사 리 아	송 화 현	28일	시 몬 (St. Simon)	김 동 수 최 화 영 최 순 남
15일	아빌라 데레사 (Avila St. Teresa)	임 소 아 조 인 회			
16일	말가리다 (St. Margaret)	강 순 행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리지외의 데 레 사 (St. Teresa)	김영자(B) 황옥순(H)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아빌라의 데 레 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권준일(B)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18일	루 카 스 (St. Luke)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윤주해(B) 안수경(O)			
	프 랑 크	정유진(H)	28일	시 몬 (St. Simon)	유영도(H)
7일	로사리아	조현영(B)	30일	루 실 라	권명옥(O)

❖ 10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0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4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이정수(토마스)	3구역
11일	김혀웅(야고보) 김정자(젼마)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진호(프란치스코) 곽케빈(요셉)	4구역
18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박귀동(토마)	허선애(임마누엘라) 김잔디(아네스)	주일학교 복사단	1구역
25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뎃따)	김진호(프란치스코) 이정수(토마스)	2구역

❖ 10월 성가번호

10월	입 당	봉 헌	마 침
4일	461	218	271
11일	48	217	249
18일	439	216	46
25일	1	212	29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10월 27일	☩이원일 요셉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 30일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계(€)	238.12	228.68	196.30	195.90

❖ 자진헌납금 ❖

2015년 8월 24일 - 9월 20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배성우, 손대조, 심동근,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종하, 이현묵, 현영애, 박경원,
진윤희, 이공종, 육종인, 박성아, 이정은, 이철우, 최장용, 정명옥, 김민수, 박귀동,
김형웅, 이수웅, 김부남, 이정수, 한선지, 박재형, 정정숙, 윤예진

구좌입금 :

김대현, 김동수, 김진호, 남궁 춘배, 백정선, 강일남, 최성자, 홍경영, 방영자, 허체열,
최현봉, 허두옥, 서유미, 김치수, 곽케빈, 허길조, 이성원, 김유석, 최화영, 오옥수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어르신 합창단 발표 주일(셋째 주일)을 제외하고 미사 전 14:15분에 꾸리아 주관으로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2. 10월 11일(주일)에 백정선(토마스), 백영자(헬레나) 부부의 금혼식을 올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3.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독일 사목자 회의가 에센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하여 주십시오.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4. 주임 신부님께서 10월 20일(화)부터 10월 25일(주일)까지 라스팔마스 한인 공동체에 피정을 주관하러 가십니다. 우리 본당에는 그 동안 라스팔마스 주임 마태오 신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5. 10월 24일(토)에 레지오 단원교육이 있습니다. 꾸리아 단장님을 통해서 공지 합니다.
6.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7. 첫 영성체 준비를 김 산, 박동윤 스테파노, 김현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 아들, 딸 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이선주(로사)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8.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함부르크 교구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소공동체 모임은 브레멘 매월 3째 주 수요일 14:00 서아우구스티노 형제님 댁에서 비스백 매월 3째 주 토요일 14:00 김 테레사 자매님댁에서 갖습니다.
3. 저의 브레멘공동체에 식구가 늘었습니다. 음악계통에서 일하시는 최 모란 세실리아 자매님과 유학 오신 최희정 베로니카 자매님 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만남을 감사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 묵상회에 참석 하셨던 두 자매님께서 건강하게 영적선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두 자매님을 위하여 지향기도 바치신 형제, 자매님들 께 감사드립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10월 미사 때 로사리오 성월을 맞이하여 공동체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9월 정기미사(9월 12일)를 순교자 성월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 나눔의 잔치에 짜장면과 탕수육 봉사를 해주신 자매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10월 3일(토)에 김선민 카타리나가 독일 본당에서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공동체는 이날 함께 미사 참례하고 마리오, 비비안나 가정에서 소공동체 기도모임 후 축하잔치를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이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허 길 조 안드레아	040/ 555 3441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속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0157 84305419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5년 10월 ❖

10 월 중 행 사 예 정 표

(목주기도 성월 - 전교의 달)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목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꾸리아	
2	금	수호천사 기념일 노인의 날	1구역 소공동체	
3	토	개천절		브레멘 공동체
4	일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사목협의회	
5	월			
6	화			
7	수	목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8	목	한로		
9	금	한글날	2구역 소공동체	
10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1	일	연중 제28주일	청년 소공동체	
12	월	순교자 박대식 빅토리노 치명일(1868년)	독일 사목자 회의 -16일(에쎈)	주임 신부님 출장
13	화			
14	수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평일 미사 없음
15	목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16	금		3구역 소공동체	
17	토	안티오키아의 성 이나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하노버 공동체 미사
18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연중 제29주일, 전교 주일)	예비자 교리	
19	월			
20	화		주임 신부님 출장	라스팔마스 본당
21	수			
22	목			
23	금		4구역 소공동체	
24	토	상강	레지오 단원 교육	꾸리아 준비
25	일	연중 제30주일		
26	월			
27	화			
28	수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29	목		연령회	
30	금			
31	토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